

郷土史料集

第 2 號

目 次

■ 郷土의 人物

머리말 / 1

조충장군 (趙冲將軍) / 3

韓相烈 / 13

崔養玉 / 16

鄭 述 / 19

■ 郷土의 孝烈

安光璫 / 21

烈女金氏 婦人 / 25

郭采象 / 28

용마총 (龍馬塚) / 30

학술묘 / 34

雲巖亭의 由來 / 38

橫 城 文 化 院

머 리 말

自身の故郷을 아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만은
유독히 횡성사람들은 그 어느 고장의 사람들 보다 횡성을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面면村村에 전하여 지는 故郷의 이야기 만으로는
고향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 적으나마 고향의 옛人
物, 孝烈, 전설, 遺蹟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엮어 우리
의 고장에서 자라나고 있는 靑少年들에게 愛郷心을 심어
주는 교육재료로 배포하고자 제 2호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愛國의 고장으로 忠義烈士를 많이
배출하고 孝子, 烈女가 많이 살든 고장이며, 近世에 와서
는 일본인의 침략을 무찌르고자 抗日義舉에 참여하였다가
희생된 義兵이 많았던 고장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3·1 만세 운동때는 강원도 영서지방에서는 제일
먼저 만세를 외치며 일본헌병과 맨주먹으로 싸우든 先人들
이 살고 계시든 고장임을 배워서 알고 간직해서 先人들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신적 支柱로 삼
아야 할것임을 바라는 뜻에서 이 史料集을 만들어 배포하
는 것이오니 靑少年 여러분이 둘러가며 읽어 주시기를 바
랍니다.

1987 년 6 월 일

횡성문화원향토사 편집실

趙 沖

<趙沖>趙沖은 父親 永仁과 아들 계순과 더불어 橫城 趙氏 門中은 물론 江原道에서 빼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고려조를 통해서 文臣으로 빼어났고 武臣으로 유명했던 그들은 3代가 원수를 지냈다 하여 3원수라 부르며 公根面 上洞里에 후손들이 사당을 지어 세덕사라 부르며 매년 봄, 가을에 祭享을 올려 왔으므로 이곳 지명을 3원수골이라 불리운다.

沖은 趙永仁의 아들로 高麗史 列傳 第16卷에 보면 沖의 자는 심약이며 생후 1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위었으며 어릴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므로 孝童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또한 橫城趙氏 족보에 의하면 그는 上洞里 紫之峰 아래 있는 굴바위 (석굴)에서 태어났으며, 그 까닭에 이곳에서 5백m 가량 떨어진 곳의 마을을 趙村이라 부르고 다시 이곳에서 3백m 아래쪽에 있었다는 仙降亭에서 이들 부자가 시를 읊었다고 적고 있다.

趙沖은 고려 때 거란족을 막은 大將軍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시호가 文正公으로 아버지 文景公, 아들 光定公으로 그들의 생애가 모두 문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의 趙冲에 대한 서술은 모두 戰線에서 쌓은 공적에 관한 것이다. 崔氏 무단정치가 시작되던 최충헌의 집권 당시였으니 文臣으로서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비록 활발하였다 해도 감추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鄭仲夫의 난 이후 최충헌의 집권까지 무신의 분쟁이 계속되어 마치 문신인 김부식이 上將軍이 되어 묘청의 난을 평정하고 功勳을 차지하던 그와 같은 문신의 횡포는 지양되었을 때이고 보면 충은 명실상부한 상장군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가 문과에 及第하여 文臣으로 활약하다가 어떤 경로를 거쳐 무신으로 입신출세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문신으로 일했고 전시에는 무신으로 장군이 되어 국방에 몸바친 것을 보면 文武를 겸비한 인물임에 틀림 없다.

다시, 橫城趙氏 세보에서 그가 등용된 과정을 살펴 보면 음보로 벼슬에 올라 등용된 후 명종 때인 1190년에 及第하고 熙宗 7년인 1211년 國子大司成 寶文閣太學士 겸 翰林學士에 올랐는데 그의 수중에 典冊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그는 이때부터 학자로서 정통적인 출세의 길에 접어든 셈이며 그가 東北面兵馬使를 지낸 것은 무신의 자리를 맡은 것

인데 東北面兵馬使는 東界의 군정 책임자로서 지금의 咸南, 江原의 東海岸의 행정을 주관하는 동시에 동북 방면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다.

그 후 그는 禮部尙書를 맡아 文臣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문무의 자리를 옮겨가며 그 재질을 발휘하다가 高宗 3년인 1216년에 樞密院副使翰林學士承旨로서 上將軍을 겸임하였다.

고려사 열전에서도 충은 재질이 문무를 겸비하여 특별히 두 관직을 주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혹자는 그의 이같은 立身을 최씨 정권의 혼잡한 정계를 틈타서 비정상적인 출세도를 달린 인물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최충헌 집권의 초기는 鄭仲夫, 慶大升 등에 의해서 문란해진 정가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보고 있는 때이고 최충헌 형제의 싸움을 기점으로 난폭해졌던 때는 충이 그의 正道를 지켜 최씨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던 때이다. 그가 거란족과 싸움이 끝난 뒤 평양(西京)에서 버티면서 최충헌과 한때 맞섰던 것은 곧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충에 대대 功勳을 주는 정도가 소홀하여 맞서게 되었다고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戰亂史에 特記되어 있다. 이것은 곧 그가 세도

가나 불량배와 결탁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그의 곧은 절개와 충성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웬만하면 세도가에 의탁하여 자기의 철학과 인간의 知性을 짓밟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권위로 군림한 자리에는 예사 복종의 논리만을 자기의 것으로 알았고 그것을 미학의 세계로 발전시켰던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지금도 이러한 풍토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조충의 고고했던 성품과 행동은 무신 집권기의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지성적 레지스탕스 풍토를 유지하는데 자못 有益한 것이다. 그가 그러한 성품과 행동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력이 한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들여진 것이라고 식자들은 평하고 있다.

그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 국사상에 그 공훈이 빛나고 있는데 그 전란사를 통하여 그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 보면, 고려는 北進政策을 세워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북진정책은 거란, 여진, 몽고의 침입 때문에 좌절되었는데 중국에서 몽고족이 일어나 北中國을 지배할 때 만주에서 살고 있던 거란족이 몽고에 밀려 고려를 침범하였다. 이것을 거란유족의 침입이라고 하는데, 유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족이 몽고의 지배를 받기 전에 북중국을 지배하여 요나라로 군림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즉, 고려 成宗과 顯宗때에 거란족이 고려를 침입한 적이 있어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거란유족의 침입이라 한다. 그들이 고려를 침입한 때는 고종 당시의 일인데 특징적인 것은 정규 군대의 침입이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침입군이어서 엄격하게 말하면 거란족 이동의 성격을 띤 것이 짙었던 것이다. 그들은 갖은 약탈의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강토를 짓밟았다. 그들의 처지로 보면 돌아 갈 곳이 없는 형편이니 고려에 살 곳을 만들어야 했고, 살 곳을 만들자니 악착같이 싸워야 했다. 돌아 갈 곳이 있는 무리라면 싸우다 불리하면 후퇴하는 수도 있겠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새로운 생활 근거지를 찾아 다니는 무리였으니 싸움과 죽음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무리였으니 약탈도 극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처음 침입한 때는 고종 3년이었는데 平安道방면으

로 들어와 평안도는 물론 黃海道지방을 짓밟고 당시 서울이었던, 開成을 피해 철원을 침입하고 陽平을 거쳐 原州에서 큰 싸움을 벌였다. 9번의 큰 싸움을 통해서 原州地方의 싸움은 고려 전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와 같은 9번의 싸움 끝에 침입한 거란족은 橫城, 洪川, 春川을 침입했다.

당시 춘천은 안양이라고 했고 도지사격인 按察使가 있었는데 鳳儀山 혈전의 애절한 史話와 함께 按察使 魯周翰이 전사했다. 춘천을 완전히 점령한 그들은 원주를 재침하여 짓밟다가 고려군에게 쫓겨 제천, 영월, 강릉, 양양을 거쳐 함경도를 지나 女眞의 땅으로 들어 갔다. 이렇게 거란유족의 침입은 강원도 전란사에서 특기되는 사건이며 희생도 많았다.

특히 강릉 사람들은 그들의 만행을 피해 울릉도로 피난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는 비극을 연출했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충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승전과 패전의 연속 가운데 한때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파면당한 일도 있었지만 곧 다시 복직되었다.

그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거란유족이 재침입한 고종 5년인 1218년으로 그는 西北面元帥로 임명되어 金就勳, 鄭通寶, 오수기 등의 장군을 앞세우

고 평안도 방면으로 쳐들어 오는 적을 맞아 싸웠다. 거란족은 고종 3년에 침입했던 때 처럼 남쪽으로 내려 가려 했지만 조충의 탁월한 작전에 말려 침략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고 江東城으로 도피하는 등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종 3년 침입 때에 쉽게 막지 못한 것은 최충현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최충현의 愛妓 紫雪仙이 平安道 白丁들에게 가혹한 稅를 거두어서 거란족과 합세했다는 점과 둘째, 고려 군인 중 젊고 용감한 군인은 최충현의 私兵으로 만들어 실제 고려군은 늙고 힘이 없었다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조충은 그러한 군대일망정 김취려 등과 함께 잘싸워 적을 江東城에 몰아넣고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몽고가 원조를 핑계삼아 進駐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몽고군과 함께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正月에 그들의 항복을 받았다. 3년간에 걸친 전란은 이로서 끝났는데 여기서 조충의 처사에 두 가지 특수한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몽고군의 대장 합진과의 談判광경인데 주연상이 베풀어진 몽고군 진영에서 술을 무한정하게 잔을 바꾸었고 안주는 몽고식으로 칼에 고기를 꿰어 상

대방의 입에 넣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술자리였다. 그는 시종일관 당당하게 분위기를 제압하여 합진으로 부터 형의 대우를 받고 돌아와 당시 합동작전의 결과 처리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번째는 국사상에서도 유명한 것인데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거란족의 왕자를 비롯한 지도층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지만 그 외의 5만여명의 거란족을 우리나라 곳곳에 분산시켜 살게 하였다. 이같은 용단은 거란족이 몽고의 일파인데도 불구하고 몽고에서 살지 않고 고려에서 살겠다고 애원한 탓도 있겠지만 어제의 적을 한 가족으로 맞아 주는 성품 그것이 바로 조충의 인간성이다.

조충의 거란족을 우리 나라에서 살게 하는 계획은 고려정부에서도 동의 수락하므로써 방방곡곡에 거란족의 촌이 생겨 났으니 그것이 바로 거란장이다.

이러한 그는 고종 7년인 1220년 9월 3일 50세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왕이 조회를 3일간 폐하고 애도하는 등 모두가 안타까워 하였다. 그에게는 政堂文學判禮部事 修文 太學의 벼슬이 더해졌고 사후에는 金紫光祿大夫 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에 追贈되고 文

正公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그에게는 처 東州崔氏와 아들 趣昌과 계순이 있었다.

조충은 고려 때 高宗 묘정에 配享되었고 朝鮮祖에 이르러 고려 太祖, 顯宗, 文宗, 元宗과 함께 고려 충신 16인 列位에 한 분으로 숭의전에 配享되었다.

그의 묘소는 지금 북한땅인 開城郡(市) 上道面 연동의 太祖王妃齊陵 서편 언덕에 있었던 것을 6.25동란 전인 1948년 지금의 황성읍 정암리의 望白으로 옮겨왔다.

여기서 조충과 연관된 地名을 살펴 보면 공근면 부창리에 있는 望祭머리는 그의 訃音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제사드린 곳이고, 拜行고개는 3월수가 떠날 때 배웅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정암의 望白은 벼슬에 오른 후손들이 조상께 사된다는 뜻이라고 전해 진다.

끝으로 조충의 詩중에서 현존하는 시 한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시는 그가 副元帥로 出征하였다가 패하여 면직된 뒤에 읊은 시로 그의 한과 애국심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후에 다시 女眞의 黃族子軍을 압록강에서 대파하고 오히려 元帥職에 오르게 된다.

萬里霜蹄容一蹶

悲鳴不覺換時節

倘教造父更加鞭

踏躪沙場摧古月

만리 길 서리굽이 한번 미끄러 졌으니
병마의 비명소리에 시절 바뀔 줄 몰랐노라
아마도 조부의 본을 받아 다시 주마에 가편하고
모래톱에 유린하는 오랑캐를 꺾어나 보자



韓 相 烈

일제의 침략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韓相烈 의병대장은 한동수의 長男으로 字는 文極이며 1876년 4월 2일 橫城郡 隅川面 文岩里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 부터 남달리 강한 용기와 인내심으로서 놀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이들로서는 理解할 수 없는 넓은 抱擁力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때 日帝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이들을 토적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뜻을 가진 인물들을 糾습하여 1907년 8월 鄉里인 橫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장이 되어 일제의 탄압에 항거, 대항하였다.

의병 수는 최소 2백여명이고, 가장 왕성한 때에는 1천 2백여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기상 또한 분노에 가득차고 생기가 왕성하였다.

韓相烈先生은 이러한 의병들을 통솔하여 韓甲復, 閔肯

鎬, 李仁榮의 병들과 더불어 지평, 洪川, 原州, 平昌, 寧越 등지를 전전하며 日本軍과 싸우기를 무려 5백여 회에 이르고 많은 日本兵을 도륙하고, 무기 탄약 등을 로획하는 전과를 올렸고 특히 1908년 2월에는 洪川에 있었던 일본군 대부대와와의 대회전에서 이를 격퇴하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에 일본군들은 그해 4월 2일 문암리에서는 韓相烈의 처자를 납치해다 놓고 그에게 귀순을 강요하였으나 일본군이 안정된 생활과 온갖 조건을 제시하여도 “나 자신의 일 보다는 조국을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결의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온갖 회유와 협박 수단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4월 20일에는 횡성읍을 습격하니 일본군의 간담은 싸늘해졌다.

이토록 韓相烈은 맹렬히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으나 일본군이 병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소위 대토벌작전을 전개하는 바람에 우리의 의병군들은 解散 내지 敗散됨에 국내에서의 항일투쟁이 어려워짐을 느끼고,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결합하고 大韓 의용부에 가담하여 참모의 중책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1926년에는 대한독립단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중 이해 9月 19日 민족진영의 分裂 및 沒落을 책동하는 소위 駐中靑年總聯盟 共產당원들의 흉탄에 맞아

조국의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어이 없게 동족의 손에 의하여 51세를 일기로 別世하였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불태워 조국에 희생하는 韓相烈 대장의 정신과 어떤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겨레 앞에서 순응한 애국심은 항일사에 화려한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있다.

1963년 정부로부터 光復軍으로 활약한 공로로 建國勳章 國民章을 받았다.

崔 養 玉

崔養玉志士는 江陵崔氏로 1983年 12月 5日 江原道 橫城郡 甲川面 花田里에서 出生하였으며 호는 추강 자는 吉俊이다.

1913年 4月 原州普通學校에 입학하여 1917年 同校를 卒業하였다. 同年 3月에 서울 中東中學校에 入學하였다. 1919年 3.1 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이 투철한 志士는 독립투쟁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하고 故鄉인 橫城으로 내려와서 同志를 모은 뒤에 天道敎人들과 합세하여 3月 77日 橫城邑 장날에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志士는 日警의 추적을 피하여 가진 고생을 겪으며 상경한 후 만주에 가서 李東寧, 박은식으로부터 군자금 모금의 지령을 받고 서울에 와서 표면상으로 만주 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던 申德永을 만나 1920年 7월 서울 소격동 申德永의 집에서 申德永, 노형규 등과 扶韓青年團을 조직하였고 志士는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全南 각지에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 志士는 다시 申德永, 노기준과 같이 全南 담양군 및 谷城郡에서 군자금 모

금에 진력하던, 同年 11월 5일 노기준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光州로 가던 도중에 日警에게 체포되어 1921년 5월 7일 光州地方法院에서 징역 7년의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고 1926년 출감하였다.

출감한 뒤 고향을 찾아가니 부친은 이미 4개월전에 別世하였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조국 광복을 위하여 몸을 바친 志士는 가사불고하고 고국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여 中國 山西省 大原府에선 安昌男, 李客華, 金正連등 여러 동지와 더불어 共鳴團을 조직한 후 團長에 피선되었다.

1927년 安昌男, 申德永, 金正連등과 북만주에서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할 目的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 모금과 서울에 共鳴團 支部를 설치하고자 金正連 李善九와 함께 서울 교외 忘憂里에서 춘천으로 가던 일본 우편물 수송차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정차시켰다. 그리고 志士의 일행은 차 속에 실었던 우편주머니를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日本人의 우편물은 모두 불태워 버리고 동포들의 우편물만 남겨두었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자동차를 모조리 정지시킨 후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짜기로 끌고가서 꿰어 앉히니 그 수효는 70여명이었다. 이와 같이 산 밖으로 정보가 새지 않게 한 후에 志士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

고 강원도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 미쳐 이 급보를 받은 日警은 京畿, 黃海, 江原, 忠淸, 忠南 등 5道의 日警과 日本軍 第19師團의 응원을 얻어 경기도 양주의 天馬山을 포위하였다. 志士의 일행은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차고개를 넘다들면서 1주야를 악전 고투하였으나 탄환은 떨어지고 배는 고파 세력 궁진하여 중과부족이라 日警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 후 京城地方法院에서 1년간의 예심을 거쳐 志士는 징역 10년의 언도를 받고 金正連은 징역 9년 李善九는 징역 6년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李善九는 옥중에서 병사하고 志士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만기로 출옥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는 서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年間 근무하였고 仁川형무소장으로 승진되어 근무하다 퇴임한 후 先山이 있는 갑천면 전촌리에 귀향하여 가족도 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내시며 마을 노인회원들과 소일하던 중 1982년 노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지금 전촌리에는 崔養玉志士의 묘가 있으며 그의 一生을 기록한 묘비가 있고 해마다 한식때가 돌아오면 서울에 사는 자손들이 찾아 와서 사초를 하고 제를 올린다. 共鳴團 活動으로 建國勳章을 받았다.

鄭 述

정구는 1543년 (중종 38년)에 태어나서 1620년 (光海君 12년)까지 살았던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정구는 자는 道可 호는 한강이었으며 김광필의 외증손이다.

7-8세에 大學論語를 습득 할 만큼 수재로서 일찌기 오건, 조식, 이황 등을 찾아 학문을 두루 섭렵했다. 계유년 禮賓參奉에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主簿縣監에 임명되었으나 계속 취임하지 않고 있다가 1568년 (戊寅)에 전창의 청으로 벼슬이 五品에 올라 여러 현감으로 임명되었으나 응하지 않다가 1580년 (宣祖 13년) 비로소 창녕현감에 부임하여 善政을 베풀어 그곳에 生祠堂이 세워졌다. 그 후 1591년에 통천군수로 임명되었다가 임진왜란시에는 강릉부사가 되었으며 1594 (甲午) 동부승지 (同副承旨)를 거쳐 강원감사, 성천부사, 충주목사를 거쳐 공조참판에 올랐다.

1608년 (光海君 1年) 대사헌이 되었으며 임해군의 옥사가 일어나자 이에 관련된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고 상소한 뒤 고향인 횡성으로 돌아갔다.

1613년(光海君 5년) 癸丑獄死가 일어나자 상소하여 永倉大君을 구하려 했으며 1618년(戊午)에는 戊午廢母의 일이 결정되자 누차 상소하였다.

1618년에는 향리에 百梅園을 세워 유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횡성읍 목계리에 자신의 호를 따 한강대라는 정자를 짓고 유생들과 더불어 詩를 읊으며 여생을 보냈다.

그는 經學을 비롯하여 算數, 兵陳, 醫藥, 風水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에 정통했으며, 특히 禮學에 뛰어나 이 방면에 관한 저술을 많이 내었다. 또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써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글씨도 잘 썼었다.

仁祖反政(1623년) 후 이조판서에 追贈 되었으며 星州의 회연서원을 비롯하여 여러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文穆公이며 그의 저서로는 총 21卷 9책으로 되어 있는 한강집, 무이지, 臥龍誌, 七先生禮說, 聖賢風範, 太極問辨, 高金忠謨, 溱四言仁錄, 玉服沿革圖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安 光 瑾

둔내면 화동리에 순흥안씨인 안광근씨가 살았다. 성품이 순박하고 인정이 많았으며 불쌍한 이웃을 보면 그냥 있지 못하고 도와주는 착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의 근본을 오행과 효에 두고 부모 공양하기를 다른 사람의 龜鑑이 되어, 온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알려졌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 드리지 않았으며 부모님이 즐거워 하실 일에는 온갖 궂은 일도 마다 않고 하였다. 녀석지 않은 살림이지만 부모님 식성에 맞는 반찬을 해 드리도록 아내에게 늘 당부하였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며 정성을 드려 모셨다.

험한 대관령 고개를 넘어 동해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바다 생선을 구해다가 공양하였으며, 깊은 屯內 산숲에 노환에 좋다는 희귀한 약초며 산짐승 고기를 구하여 드리곤 하였다.

노환으로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가슴 아파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부모의 소중함과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가지게 하였다.

장례를 치른 후, 집에서 6 km가 넘는 묘소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묘했다. 그는 자식으로서의 못다한 효도를 닦으려고 살아계실 때 더욱 잘 모시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부친의 명복을 빌었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 불덩이 같이 달아 오르는 아픈 몸으로 성묘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근심하여 말렸지만 개의치 않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그럴때는, 아버님의 생전에 말씀 「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을 되새기며 선행의 덕을 쌓겠다고 다짐하곤 하였다.

이러한 일도 있었다. 몹시도 추웠고 눈발이 심하게 날리며 매서운 북풍이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도 안효자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버님 묘소로 향했다. 매서운 추위도 그의 효심 앞에서는 위력을 잃었는지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좀 수그러져 있었다. 오한과 기침과 어지러움 때문에 워낙 허약하고 아픈 몸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는 그만 의식을 잃고 어느 소나무 밑에 쓰러지고 말았다. 웅장하던 산의 모습도 쏟아지는 눈발 속에 파묻혀 가고 있었고, 까마득한 마을의 집들도 분간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안효자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 갔는데, 희미한 의식속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광근아! 예서 쓰러져 있으면 어찌냐?’」 그것은 또렷한 아버지 음성이었다. 그가 묘소에 올 때면 항상 주인을 따라오는 「누렁이」라는 개가 쓰러진 주인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마한 시간이 흐른뒤에 또 다시 또렷하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광근아! 애비께 불효할 테냐, 어서 정신 차리거라」” 그는 불효라는 말에 깜짝 놀라 정신이 들었다.

이윽고, 근심스럽게 기다리던 가족들이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고, 「누렁이」의 울부짖음으로 안호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사람들은, 그의 호심에 하늘이 감동하여 가물거리는 의식속에서도 부친의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 그를 凍死직전에서 구해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친이 사망했을 때에도 부친이 돌아가신 때와 똑같이 극진한 정성으로 묘소를 찾아가 아들의 도리를 다하였다.

이같은 효행은 널리 알려져 당시 원주 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주의 員은 안호자의 지극한 효행에 크게 감동을 받아, 효행을 상소하였다.

조정에서는 안광근의 가특한 효성을 모든 백성들의 귀감이 된다고 칭찬하고 光戊 26년 6월 3일 호자문을

銘訂하였고 戶曹參判겸 동리의금부사에 명하고 호자문을 내리게 하였다. 지금도 이곳 화동리에 호자각이 보존되어 그의 호행을 더욱 빛내고 있다. 이곳을 지나 는 모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이 호자문 앞을 경건히 지나고 있으며 그의 후손인 安明俊이 유적을 관리하고 있다.



烈女金氏婦人

열녀 강릉 김씨 부인은 조선 중엽인 선조임금때 갑천면 포동리에서 남편 정 준제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이 전국토를 유린하고 있었고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침략자와 싸우고 있었다.

농사일을 하던 정씨도 비록 초야에 묻힌 몸이지만 백성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몸을 바치고자 굳은 결의로 의병으로 출병했다.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전라도 지방에서 막강한 무기와 군대로 무장된 왜병과 악전고투하며 용감하게 싸우면서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불행히도 연일 계속되는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입고 거동이 불편한 몸이 끌고 집을 찾아 오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김씨 부인은 곧장 남편을 찾아 나섰다.

홀홀단신으로 남편을 찾아 나선 부인은 백방으로 수소문 한 끝에 전라도 어딘가의 외진 초막에 쓸어져 있는 남편을 찾아 낼수 있었다.

남편의 물결은 말이 아니었다. 부상당한 팔다리는

씩어 들어 가고 있었으며 의복은 갈래 갈래 - 찢기고
피에 찌들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가련한 모습이였다.

그러한 남편이지만 부인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남
편을 부둥켜 안고 정신을 잃고 쓸어졌다. 이내 정
신을 가다듬고 마비된 남편의 수족을 주물러 피가 돌
게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한뒤에 인근마을에 내려가
그릇과 곡식을 얻어다 죽을 쑤어 먹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김씨 부인의 이러한 지성과 정성어린 간호
의 보람도 없이 그날밤 고열과 몸이 뒤틀리면서 타
관객지에서 구국의 한을 채 풀지도 못한채 운명하고
말았다. 부인은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의 임종을 지켜
본뒤 몇일간 통곡을 하며, 슬픔을 달래다가 마음을 가
다듬고 남편의 시신을 마을로 부터 한적한 곳으로 옮
긴 다음 남편의 시체와 더불어 동숙하였더니 시체가
말라 가벼워지고 깨끗해지자 수습하여 손수 머리에 지
고 수일이 걸려 수백리 길을 걸어서 온갖 고초를 이
기며 갑천면 포동리 마무리 마을에 돌아와 문중산에
정성을 다해 안장한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
으로 묘소 옆에 움막을 짓고 치마폭으로 돌을 날아
다 묘소 둘레에 화담을 쌓는등 단장을 하면서 3년
간 시묘살이를 지냈다. 이같은 김씨부인의 정성어린

열행이 널리 퍼지니 유럽에서 추천하여 조정에서 정
씨문중에 교지를 하사하니 열녀정문을 건립케 되었다.

이정문은 지금 황성군 갑천면 포동리 301 번지에 위
치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9월 9일날 9일 차례를 드
리며 고인의 유덕을 기리고 있다.

郭 采 象

효자 광채상은 갑천면 포동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가세는 넉넉치 못하였으나 평소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한 효자로서 항상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아침 저녁으로 끼니 때가 되면 부모님의 진지는 항상 따뜻한 쌀밥을 따로 떠서 드렸으며 남은 가족들은 잡곡밥이나 죽을 쑤어 먹으면서 누구 한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농사일중에도 매일 같이 낮에 틈을 내어 대관대리 입구에 있는 큰沼에 나아가 낚시질을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같이 쏘가리가 잡혀지기는 했으나 두마리 이상은 잡히지 않았다. 이 쏘가리는 아침과 저녁식사때마다 매일 같이 진지상에 반찬으로 올랐다.

기이한 일은 이 쏘가리가 전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이지 않을 뿐더러 몇 일을 두고 낚시를 드리워도 허사였다.

그리고 비가와도 물이 늘거나 흐려지지 않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이沼의 물은 그대로였다.

광씨의 정성어린 효성으로 그의 부모는 80이 넘도

록 장수하였고 부모가 세상을 뜬 뒤에는 두 분의 묘소곁에 묘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를 하니 부친의 상때나 모친의 상때나 그가 정중하여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시묘기간 동안 그의 아내 김씨가 남편 못지 않게 농사일이며 아이들 양육이며 정성을 다해 해냈다.

이 소문이 인근에 널리 퍼지니 유림에서 조정에 추천하여 효자의 교지를 하사 받고 정문을 내리게 하니 이 정문이 오늘날 갑천면 추동리의 갑천면사무소 추동출장소 뒤편 산 언덕에 있는 효자 정문으로 1984년에 황성군의 지원을 받아 말끔히 단정하여 그 가룩한 효성을 널리 오래도록 전하고 있다.

그리고 광씨가 매일나가 쏘가리를 잡던沼에는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후로는 아예 쏘가리가 잡히질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한 수해에 물이 불고 줄곤 하였다고 하니 하늘이 광효자의 효심을 보살핌이라고 한다. 광씨가 나아가 낚시질 하던 바위를 쏘가리 바위라고 하여 한문으로 쏘가리케(鰈) 자를 써서 케어암(鰈魚岩)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6.25 동란중에 파괴되어 없어 졌다고 한다.

용마총 (龍馬塚)

○ 용마총 (龍馬塚) 전설

고려시대 이곳에는 黃將軍이라 불리우던 장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힘이 어찌나 장사였든지 황소 한마리쯤은 맨주먹으로 때려 잡는 일기당천 (一騎當千) 의 위세를 겸한 그는 홀로 龍馬라고 불리우는 말한필과 함께 무술연마에 혼신의 힘을 다 했다.

때가 와서 나라에서 부르면 한걸음에 달려나가 나라를 위해 큰공을 세우겠다는 큰뜻을 마음속에 품고 그는 밤낮없이 용마와 더불어 전투훈련에 열중했다.

활쏘기, 칼쓰기를 달리는 말위에서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때 까지 그는 계속 연습에 온힘을 기울였다.

피나는 훈련이 연일 계속 됐다. 원래 타고난 힘과 무예에 재능을 가진 그는 하루가 다르게 무술솜씨가 높은 경지를 향해 발전돼 나갔다.

말위에서 그가 시위를 당기면 평지에서 과녁을 향해 쏘는 활쏘기 보다 더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켰으며, 그가 말위에서 날이 선 칼을 휘두를때마다 칼은 무서운 소리를 내지르며 목표물을 무자르듯 두 동

강 내버렸다.

그는 이제 뜻한 바 만큼 무술이 향상 된 것을 알고는 용마에 대해 집중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좋은말이란 뭐니 뭐니 해도 빠르기가 생명이다.

이 말은 이름에 남부끄럽지 않게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황장사를 태우고 들판을 내달리고 산위를 뛰어 올랐다.

홀로 사는 누이에게 아침밥을 짓게 하고는 멀리 서남동 고개까지 갔다 오게하여 만약 아침밥이 되기전에 도착해야지 그렇지 않을때는 아침식사를 주질 않았다. 그렇지만

용마는 한번도 아침을 굶지를 않았다. 아침밥이 끓기도 전에 용마는 「히힝」소릴 내며 집엘 도착했다.

드디어, 황장군은 용마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다.

용마를 탄후 화살을 쏘아서 그화살이 목표에 맞기 전에 말이 먼저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말의 목을 베기로 했다.

정말 비장한 시험이 아닐수 없었다. 용마에게 있어서 이 한번의 시험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황장군은 남산에 올라 심호흡을 한후 건너편 마산

리를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다. 「윙」소릴 내며 화살이 이쪽 산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 갔다. 그와 동시에 말도 있는 힘을 다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향해 내달렸다.

쏜살과 용마의 대결, 죽느냐 사느냐의 용마의 사활이 걸린 시합이 숨가쁘게 진행 돼 갔다.

순식간에 용마는 들판을 가로 질러 목표지인 마산리 고개 마루턱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화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필경 화살이 먼저 떨어 졌구나 생각하고 날이 선 칼을 뽑아 사랑하던 말의 목을 내리 쳤다. 시뻘건 피가 파란 하늘위로 분수처럼 내뿜어 올랐다.

용마는 비명도 제대로 못지르고 그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때였다.

바람을 가르는 화살 소리가 들리더니 방금 전 남산위에선 자기가 쏘았던 화살이 날아와 땅에 꽂히는 것이었다.

‘아! 용마가 이긴 시합이었구나!!’

그는 나뉘구는 말머리를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으나 한번 죽은 용마는 살아 돌아 올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후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 용마의 시체를 끌어 안고 가슴이 뜰어지는 듯한 통곡으로 날을 보냈다.

얼마후, 정신이 든 황장군은 용마의 무덤을 속죄의 뜻과 평소 용마를 사랑하고 아끼던 정성으로 훌륭한 말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후부터 황장군은 무술훈련을 중단했다.

단 하나 혈육인 누이가 아무리 달래고 위로 해도 황장군 마음속 상처는 아물수가 없었다.

자신의 우둔함으로 애마를 죽인 자기는 장군이 될 그릇이 못된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탄식하던 그는 활과 칼을 꺾어 버리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말무덤을 가꾸며 무덤옆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는 상제모습의 흰두루마기를 걸친 채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지금도 말미 (말묘)는 황성읍에서 2 km 정도 떨어진 馬山里 말미 마을에 남아 있으며, 마을이름도 말무덤에서 유래한 말미라 부르고 있고 행정부락명도 말馬 岬山자를 써 馬山里라 부르고 있다.



학출묘

鶴이 날아 갔다는 무덤은 橫城邑 永永浦里 되재기 마을에 있는데, 이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애뜻한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조선 숙종때 이 마을에는 인근에서는 쟁쟁한 이름을 날리는 金進士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金進士는 처복이 박했는지 아니면 多福했음인지 새 아내를 두게 되었다. 첫 부인은 웬일인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며, 둘째 부인에 가서야 비로소 相起라는 귀한 외동 아들을 얻었다.

相起는 큰 뜻을 품고 김진사와는 친족관계 되는 당시 조정에서 재상을 지내던 김상철 밑에 들어가 宣傳官을 지내면서 불철주야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셋째 부인 朴氏는 본래 天性이 어질지 못하고 질투심이 대단히 강한 여자로서 자기가 낳은 세 아들을 제쳐 놓고 둘째 부인의 소생인 상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배가 아파서 전될 수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환향하는 相起의 모습만 떠오르면 朴氏 부인은 끊어오르는 질투심에 어쩔줄을 몰

랐다.

「누구 죽는 꼴 볼라구 제가 출세를 해 어디 두고보자. 어떤일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될걸…」 박씨부인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相起출세길 막기에 늘 꼴물 했었다.

드디어 그렇게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과거 시험날이 내일로 박두했다.

그간에 밤잠을 안 자면서 相起는 준비해 온터라 볼본듯 장원급제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과거를 앞둔 전날 오후 고향에서 급보가 相起앞으로 날아 들었다.

「계모 박씨가 죽었다」는 급보였다. 相起는 마음이 괴로웠다. 이럴속도 저럴수도 없었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했던 相起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계모도 분명 어머니일진대, 과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향에 가야 한다며 삼백여리나 되는 고향집을 향해 부리나케 달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상기의 마음은 몹시도 괴로웠다. 자꾸만 과거시험이 눈앞을 아른거렸다. 그러나 오직 孝心으로 뭉쳐진 그의 발걸음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빨라만 졌다.

드디어 고향집에 다달았다. 저 멀리 永永개에 굽이도는 냇물과 늘어선 버드나무 숲이 보이고 고향집이

눈앞에 들어왔다.

그런데 비지땀을 흘리며 고향집에 다달은 상기에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죽었다는 거
모는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상기는 하늘이 그
너지는 듯하였다.



雲巖亭

지금부터 50여년전 그러니까 1937년에 준공된 이 운암정은 절친한 친구간이었던 金漢甲할아버지 (김연태씨의 부친)와 李元直할아버지 (이명규씨의 부친)의 회갑을 맞아 그 기념으로 총건축비의 반식을 부담하여 건축한 다음 이 정자를 횡성 사람들의 휴식처로 희사한 유형문화재이다.

두 분께서는 남의 도움이 없이 막대한 건축비 부담하면서 이 운암정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口傳되기도 하거니와 횡성군에서 발간한 몇가지의 책자에도 게재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金漢甲할아버지와 李元直할아버지는 어린소년시절 부터 하동네 (읍하리) 예수물 거리 부근에서 조상 누대를 걸쳐 이웃하여 살았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조반석죽을 걱정할 정도의 형편속에서 꿈 많은 소년시절을 온갖 고생과 함께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두분은 가난을 벗어나 잘 살기 위한 길을 마련하고자 서로 굳게 결심하고 약속한 다음 서로 격려하며 뼈를 깎는 고통과 싸우며 피눈물 나는 노력

을 다-하여 재산을 저축한 결과 40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부자란 말을 듣게 되었고 50대가 되었을 때는 수백석지기 지주가 되었답니다.

두 분은 소년시절에 서로 결심하고 약한 꿈을 성취하고 이웃간에 복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후 세월이 흘러 回甲을 맞이하게 된 두분은 소년시절의 立志의 맹세를 기념하고 황성사람들의 좋은 휴식처를 건립하여 두분의 생활의지를 남겨 놓고자 이정자를 짓고 정자의 이름을 雲巖亭이라 했는데 그것은 金漢甲할아버지의 號인 雲水에서 구름雲字를 따고 李元直할아버지의 號인 靑巖에서 높을 巖字를 따서 雲巖亭이라 이름지었습니다.

두 분이 그후 작고하신 때는 정확한 기록을 모르겠고 두 분의 자손으로 金漢甲씨의 장자 김연태씨가 6.25 전에 상동네에서 사시다가 6.25 후 공근면 수백리(물리)에서 거주하셨는데 1년전에 사망하시고 김연태씨의 장자가 현재 부산에 살고 있다는데 확실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李元直씨의 장자 이면규씨는 하동네에 살고 계셨는데 6.25 전에 사망하시고 그후 후손들의 거주지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雲巖亭을 대할 때 金漢甲할아버지와 李

元直 할아버지의 立志 실천 생활을 본 받으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要約된 원고임)

황성향토사료집 (제 2 호)

인 쇄 : 1987. 6. 20

발 행 : 1987. 6. 30

발행처 : 황 성 문 화 원

편집처 : 황성문화원 편집실

인쇄처 : 성 광 사

비 매 품